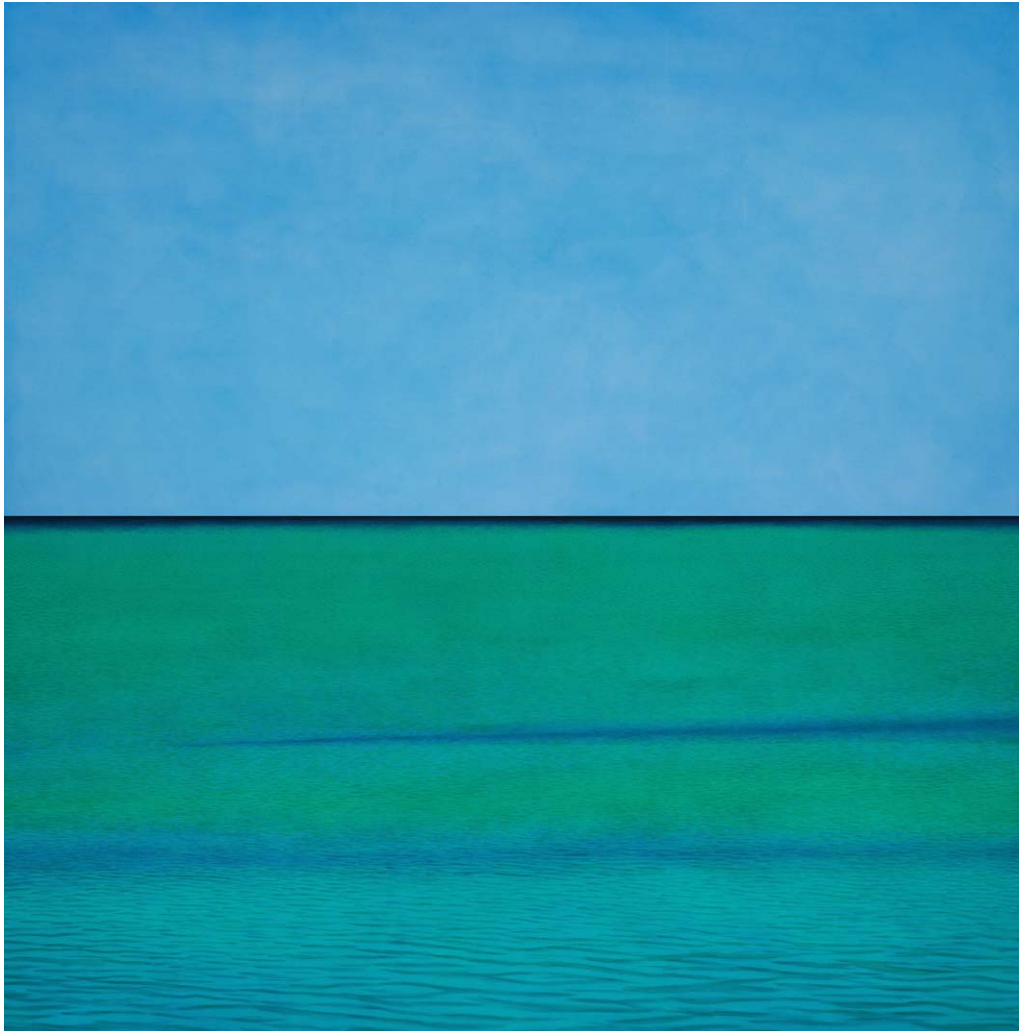


여성들에게 희망을

www.womenfund.or.kr 2013.4호



특집 여성이 만드는 돌봄사회

나눔과 공감 기부 독립을 선언합니다!

남편의 기부사실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함께 만드는 변화 우리의 젠더감수성에 질문을 던지다

여성들에게 희망을

2013.4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 위 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 및 편집 조형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3년 7월 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컴북로5길 13 (서교동 448-17)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일탈기획 070-4404-8447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로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비영리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C O N T E N T S

03 사립문 여성들이 미래를 살리는 길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특집 - 여성이 만드는 돌봄사회

04 여성이 마을을 만든다

07 사람관계가 최상의 안전장치

08 우리가 살고 싶은 곳, 미래세대에게도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팀 조진철 과장을 만나다

나눔과 공감

10 기부 독립을 선언합니다!

부모님의 나눔을 이어가는 사회초년생 정숙윤 기부자

12 남편의 기부사실에 깜짝 놀랐더니가요!

나눔으로 하나되는 부부, 신현철-정미선 씨

함께 만드는 변화

14 우리의 젠더감수성에 질문을 던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 교육 매뉴얼 제작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15 박영숙 선생님을 추억하며

신인령 /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소식

16 재정보고

18 후원현황

20 재단소식

COVER STORY Toward 2013

김보희, 300×300cm, 천 위에 채색 [이미지 제공 : 갤러리 학교재]

자연을 관찰하기보다는, 자연 내면으로 들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김보희 작가의 'Towards' 연작 중 하나. 길게 뻗은 수평선을 중심으로 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하늘의 넓은 여백,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던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이지만, 작가의 독특한 색감과 구도를 만나 특별한 시각적 의미를 전달하며, 작가 특유의 절제된 표현 속에서 고요하고 짙은 생명력을 가진 명상적 풍경을 보는 이에게 선사한다.



여성들이 미래를 살리는 길

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다습하고 무더운 장마철에 댁내 두루 무고하십니까?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월요일로 시작해서 4주 반을 꺾 메운 7월 달력마저 답답하게 느껴지던 즈음, 아주 특별하고 뜻 깊은 나들이에 따라 나섰습니다.


7월 어느 일요일 오후. 서울광장 한 귀퉁이에서는 자기만의 손수건 만들기, 엄마와 할머니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아바타 그리기, 엄마와 사진찍기....에 열중한 아이들이 부스마다 웅기종기 모여 재잘거립니다. 가설무대에서는 시 낭송, 선언문 낭독, 노래잔치가 이어지고, 용감한 밀양 할머니들과 주민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무대 아래 앉아 환호와 구호를 연발합니다. 또 그만큼 많은 어른과 아이들이 주변을 거닐면서 여기저기 부스를 기웃거리고 놀이를 하고 간식꺼리를 들고 답소를 나눕니다. 아주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의 이 모임은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탈핵 평화 시위입니다.

100% 안전한 핵발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안정한 인간의 손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공포의 무기로 돌변하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년 전 이 옷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직접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우리는 요즈음 그 사고 여파로 생긴 세슘(방사능) 함유량 많은 생선, 버섯 등을 밥상에 올리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게다가 심심찮게 보도되

는 국내 원자력발전기의 잦은 고장과 운행정지 소식, 수리해서 재가동했다가 며칠 만에 또 고장이 나는 일들로 불안합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동시에, 이보다 몇 십배 몇 백배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아쉬운 날이었습시다.

아이들과 세상을 “살리는” 길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여자들이 ‘사소한’ 일에 호들갑”이라는 반응은 위험합니다. 다른 ‘더 중요한’ 국사에 밀려 저 아래 후순위 의제로 넘기기에는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아 보입니다.

벌써 올해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워놓고 하지 못한 계획을 실행하기에 꼭 적당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재단도 이 땅의 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 남은 반년동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이 마을을 만든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마을'이라는 복고적인 환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대략 20년. 개별적인 고민이야 다양하겠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인 희망은 두 가지이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자연, 그리고 아이의 심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안전한 보육과 교육. 그러나 돌봄은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된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던가. 어른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다. 희로애락을 풀어놓을 자연과 사람이 이웃하는 삶.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귀찮아거나 귀찮히는 이들도 있고, 도시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을을 일구려 노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마을이 대체 무엇이길래.

돌봄이 돌봄을 낳는 ‘성미산마을’

서울 마포의 작은 산, 그러나 성미산이 품고 있는 마을은 작지 않다. 1994년 보육의 안전을 염려하던 부모들이 힘을 모아, 성미산 아랫자락에 한국사회 최초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의 문을 열면서 이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에 의해 공동육아어린이집 2호가 같은 지역에 잇달아 문을 열었고, 곧 먹거리 안전으로 관심을 넓힌 주민들은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마포두레생협, 2013 올림두레생협으로 개칭)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후 마을카페인 ‘작은나무’, 유기농 반찬가게 ‘동네부엌’, ‘되살림가게’, ‘성미산밥상’ 등 마을의 필요와 주민들의 의지가 결합되면서 마을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었다. 생협은 지역 경제의 구심 역할을 했다. 돈과 경제, 먹거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대안적 실천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보육과 교육은 4개의 공동육아어린이집과 함께 12년제 비인가 대안교육과정으로 설계된 성미산학교가 설립되면서 지역 자립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 청소년, 최근에는 노인에게까지 돌봄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성미산마을 주민들. 올림두레생협 6,000명의 조합원 중 450명이 매달 1천원씩 후원하는 돌봄기금을 조성하여, 2009년 3월부터 돌봄사업팀을 꾸리고 마을에서 아이 돌봄 품앗이, 노인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돌봄의 위기를 생협의 공적 복지로서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특별하다 못해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다고 진단된 이 마을의 근저에는, ‘돌봄’에 대한 각별한 철학과 믿음이 깔려 있다.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이웃(사람, 자연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에 언제나 열려 있는 자세로 소통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립과 소통은 언뜻 같이 쓰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돌봄의 언어로 고치면, 남을 돌보기 위하여 늘 자립하고, 나를 돌보기 위하여 항상 남에게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돌봄의 생활양식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성미산마을! 자연과 인간에 대한 돌봄을 해치는 공업적 개발 시도들에 저항하고, 그에 대응하는 호혜(互惠)적 생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2010년대 그들이 도전하고 성취해야 할 중요 과제이자 비전인 것 같다.



여성의 관점에서 모두를 돌보는 은평의 '살림의료생협'

2012년 3월, 여성주의 의료생협을 표방한 은평구의 '살림의료생협'이 창립하던 날, 은평문화회관 대강당은 그야말로 여자들로 인산인해였다. 연신 깔깔거리며 지루할 틈 없이 기념식과 총회가 이어졌다. 주민이 만드는 의료생협, 그들은 시작부터 유쾌하게 '똥'하고 있었다.

'살림의료생협'은 2009년 1월부터 준비하여 2012년 3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8월에 살림의원을 개관했다. '주민이 만드는' 조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처음 준비기간에 서두르지 않았고, 세심하게 설계한 덕분에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살림의원은 철저히 여성들의 관점에서 설계된 병원이다. 처음엔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의료공동체로 생각하고 모였으나, 사는 지역을 건강 공동체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립 멤버들이 마음을 바꾸면서 마을병원으로 설립되었다. 살림의원은 기성의 의료문화가 의사와 환자간의 권력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데 반해, 상호 평등한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자의 성 정체성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들을 존중하고 비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 질환 또는 여성 환자의 특수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인다. 원장은 주민들의 주치의로서, 사소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상담하고 그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 3대가

함께 진료 받으며 질병에 관한 가족력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것도 이 병원의 장점이다. 살림의원에서 환자는 이웃에 마실을 온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들로부터 기분 좋은 환대를 받는다. 그들은 친절하진 것이 아니라 친밀하다. 병원 밖에서도 이웃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 돌봄은 참 자연스럽다. 유쾌하고 건강하다. 놀이처럼 즐거우나 매우 진지하다.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 스스로 놀라고 감격하며 창립한 국내 최초 여성주의 의료생협은 1년 만에 조합원이 1,150명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저마다 사는 동네가 마을이 되기를, 담 허물고 막역하게 지낼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허물없이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게, 요즘처럼 외로움이 죽음에 되는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 삶의 조건인가. 좌절과 실의, 비판과 냉소가 넘쳐나는 시대에 위로하고 손 잡아주며 일으켜주는 문화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조건인가.

마을이, 돌봄의 문화가 활발해진다는 건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섬 같은 관계와 놀이 같은 노동처럼 달콤한 꿈은 실현되기 어려워도, 마을에서라면 뭔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또 할 수 있게 거든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기분 좋은 부추김과 함께 나섬이다. 그 곳을 일구는 주체가 여성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일까? 여성이 마을을 만든다. **W**



사람 관계가 최상의 안전장치

“아이들이 안전하고,
엄마들이 안심하는
우리 동네”



구리여성회는 지난 6월 구리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구리지역 어린이 안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7%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40.8%,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13.4%에 불과하였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어떤 사회문제도 제도적 지원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제도보다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그 역할을 부모가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거나 역부족이다. 그래서 동네의 어른들이 부모가 되어주고, 동네의 아이들이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서로 돌보는, 가족 밖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훨씬 안전하고 부모들은 훨씬 안심이 되지 않을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동네... 이웃과 분리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망이 최상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3년간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돌봄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사회 내 아동폭력 예방 및 돌봄이 필요한 13세 이하 아동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엄마들이 안심하는 우리 동네”(이하 ‘안전·안심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경기도 구리, 대구 북구, 부산 연제구 지역에서 진행한다.

안전한 동네놀이터이자 동네마당인 돌봄 센터,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가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고, 남녀노소 및 세대 간 교류가 일어나는 주민들의 수다꽃모임, 놀이터 잡담회, 맘편한 밥상, 안전지도그리기모임, 엄마학교, 돗자리가게가 준비한 벼룩시장, 안전안심마을학교, 어르신께 배우는 동네 공방 등이 만들어졌다.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제법 알려져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어린이집, 학교와 녹색 어머니회, 경찰서, 구청과 시청, 시의원과 구의원, 생협, 도서관, 지역상인회 등과 만나는 일도 잦아졌다.

이처럼 만나고 펼치고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언젠가는 닫힌 대문도 열리고 담도 허물어져 동네 아이들이 내 집, 남의 집을 구별하지 않고도 모든 집에서 보호받고 환영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이 ‘안전·안심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진행하면서 품게 된 꿈이다. 이 꿈을 후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께 감사한다. **W**

한화생명명은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유명하다. 직원 모두가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는 '사랑모아 기금',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154개의 봉사팀의 운영 등.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 모두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전 사적 차원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익사업 지원 역시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엄마들이 안심하는 우리 동네' 사업처럼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화생명의 사회공헌활동 철학은 무엇일까?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팀 조진철 과장을 만나고 왔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 미래세대에게도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팀
조진철 과장을 만나다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의 원칙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지속성과 진정성이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하다. 사실 보험회사는 그 성격에 있어서 단순히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화생명도 지역사회에 단순히 물질만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화생명이 한국여성재단의 '안전·안심 우리 동네' 사업을 후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화생명 브랜드 슬로건이 '내일을 향한 금융'이다. 여기서 '내일'은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해피 프렌즈' 사업처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재작년부터는 학교 폭력 및 사회안전망 부족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 속에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전·안심 우리 동네'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화생명이 '안전·안심 우리 동네' 사업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사회공헌사업의 대다수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한화생명의 사회공헌사업은 즉각적 성과나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년, 20년 뒤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 낼 때, 그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안전·안심 우리 동네' 사업은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시범 모델이 되어서, 이런 활동에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의 혜택을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어떤 곳인가.

부산 북구에서 태어났다.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 던져놓고 앞산에 가서 개구리 잡아 구워먹고 친구들과 딱지치기든 술래잡기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고 다녔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놀러가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다. 그러니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고... 참 안타깝다. 골목문화나 동네문화가 사라졌다.

과장님의 자녀는 어떤 동네에서 자랐으면 좋겠는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있다. 내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해도 걱정 없이 혼자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2~3학년 때까지는 데려다 주어야하고, 4학년이 되어도 아이가 늦으면 걱정이 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불안하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부모들이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녀를 보냈다가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정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다. 그곳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동네, 아이들이 나이나 계층, 직업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이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로 차별과 구획을 지으며 지낸다.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을 여기 이곳에서 만들면 좋겠다. 그 일에는 부모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리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차이를 존중하기 보다는 차별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렇지 않은가 반성하게 된다.

우리가 바라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나만 그럴까봐, 그래서 나와 내 아이만 도태될까 우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가 약한 것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이 한화생명과 함께 디자인하는 '안전·안심 우리 동네'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사회적 불신을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약속이 실천되는 사회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회공헌사업의 대다수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한화생명의 사회공헌사업은 즉각적 성과나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년, 20년 뒤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 낼 때, 그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기부 독립을 선언합니다!



부모님의 나눔을 이어가는
사회초년생 정숙윤 기부자



노랑진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한지 1년 좀 넘은 사회초년생 정숙윤씨(25세). 그녀가 월급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부 독립선언'이다. 그녀는 취업을 하면,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온 기부를 직접 자신의 월급으로 기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저런 돈 나갈 일이 많을 텐데, 선뜻 기부 독립을 선택했다. 용기있는 출발, 아름다운 선택의 주인공, 정숙윤씨를 소개한다.

그녀는 '뭐든 해보자' 주위의 소유자답게, 무엇이든 용감하게 시작한다. 중국에 유학하여 교환학생으로 2년을 지낸 것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달만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무작정 상경한 것도 그녀에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는 본인의 의지대로 한 달만에 취업에 성공! 현재 무역회사를 다니는 2년차 회사원이다. 그녀도 돌아보면 자신의 도전과 용기가 뿌듯한가 보다. 서울에 처음 올라온 그날, 3월 1일을 내내 잊지 못한다고 한다.

평범한 사회초년생들은 내 힘으로 버는 월급이 소중해 쓰지 못하고 쫄쫄 저축에 묶어두거나 그동안 사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에 지출하는 게 다반사인데, 기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주일에 2천원씩만 절약하면 1만원이 모여요. 절약하면 되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소액으로 시작한다면 기부가 주저되거나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부모님은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내면이 중요한 거지, 겉모습은 안돼 보일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렇고 상대방도 알게 될 거라고.”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큰 사랑과 존경을 품고 있었다. 20년째 옷장사 하시는 어머니와 평범한 일을 해오신 아버지의 검소하고 나눌 줄 아는 삶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자신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운 부모님의 삶이 오늘 나의 생활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녀, 정숙윤씨.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월급을 부모님께 다 보낸다고 한다.

“부모님이 안 하셨으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랐을 텐데, 부모님 덕분이죠.”

정숙윤씨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기부하셨다고 한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베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번 당신들의 이름 대신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오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돈을 벌게 되면 꼭 그 기부를 이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단다. 그 분들의 사랑스러운 딸 정숙윤씨가 마침내 부모님의 바람을 이뤄드린 것이다.

부모님은 이런 딸자식이 무척 뿌듯하고 대견하였을 것이다. 여성재단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딸이 이제 직접 기부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상기된 목소리가 생생하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기부를 중지하는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여성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보고, 저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기

부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기부금이 쓰인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한부모 여성가장을 지원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답한다. 기부를 생활화해 온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름으로 후원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 부모님이 오랫동안 기부해온 여성재단에 본인도 믿음이 생겼다고.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함께 하는 또래 친구들에게 기부를 권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물었다. 매월 1만원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우리 또래는 학자금 대출 갚고 결혼자금 모을 생각에 마음이 바쁘죠. 하지만 기부한다고 적금 못 드는 거 아니거든요. 돈을 벌면 알겠지만, 1만원은 크지 않은 돈이에요. 커피 한 잔이 6~7천원 하나까, 친구를 만나면 1만원은 금방 쓰고 말죠. 그런데 저렴한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 1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어요.”

늘 부족한 점이 많아서 무엇이든 습관이 될 정도로 부지런히 하고 싶다는 정숙윤씨. 그러다보면 분명 자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한다. 그래서 회사에도 매일 1등으로 출근한다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학창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고 했다. 무엇에든 도전하며 부지런한 25살 청춘.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녀의 생애가 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맺고, 또 그들로부터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기를 바란다. 

남편의 기부사실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눔으로 하나되는 부부,
신현철-정미선 씨



지난 봄 100인 기부릴레이에서 ‘최다 주자’ 기록을 세운 유한킴벌리를 기억하시나요? 모금 캠페인이 끝나고 결과를 정리하는 즈음,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한국여성재단에 전화를 걸어온 정미선씨. 유한킴벌리에 다니는 남편이 의논도 없이 기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이런 전조라면 영락없이 소중한 정기기부자 한 사람을 잃겠구나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남편은 유한킴벌리 충주 공장 생산2팀에서 일하는 신현철 기장이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통장의 진실,
남편만의 기부

통장을 제가 관리하는데요. 어느 날 기부금이 나갔더라고요. 작년에도 여성재단에 기부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한번만 기부금이 나갈 줄 알았더니 다음 달에 또 나가더라고요. 저녁이라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내일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여성재단에서 소식지가 온 거예요. 소식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하시는 일이 괜찮더라고요.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도 재미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부자 명단으로 유한킴벌리 직원 분들의 이름이 꼭 적혀있는 페이지에 저희 남편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곳에 저희 남편 이름이 있으니 제가 괜히 뿌듯했어요. 그날 남편 이름이 나온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딸에게 보여줬어요. 아빠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고 얘기해줬죠.

좋은 일꾼, 좋은 회사를 칭찬하다!

워낙 남편 회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 회사를 남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아냐며 기분 좋아할 때가 많아서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 기부도 물론 남편이 회사에서 하자고 하니깐 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과 제가 여성재단을 알게 되고 나눔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딸 예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구나 싶어요. 이번 기회에 부모가 기부를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모범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딸과 함께 나눔 리더십을 계획하다


딸을 낳아 키우다보니 여성문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여성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성재단 소식지를 읽어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것저것 더 내용을 찾아보았죠.

소식지에 나온 100인 기부 릴레이의 이کم이 활동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딸 예나가 좋은 여성 리더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کم이 활동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변화시킬 사회에 대해 내가 먼저 생각하고, 주변에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는 일이 이کم이 활동이잖아요. 아이 스스로 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서 주변 친구들의 참여를 이끌다보면 리더로 성장하는 거죠.

이 부부의 자녀교육, 자연스럽게 접하고 편하게 대하도록 한다

특히 성(性)에 대해 오픈하려고 노력해요. 유한킴벌리가 생리대를 만들잖아요. 덕분에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특별히 성에 대해 오픈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남편 회사에 아이들과 자주 가고 남편과 제가 유한킴벌리 생리대에 대해 얘기하곤 하니깐 아이들이 생리대를 자주 접하게 되었거든요. 딸 예나가 생리를 시작한 날, 아들이 동생의 첫 생리를 축하하는 가족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자녀 스스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것어요. 여성재단을 알게 된 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보며 좋은 자료도 볼 수 있고요. 저도 배우고요. 남편이 참 좋은 일 했네요.

많은 일회기부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머무르는 반면, 정기기부자들은 내가 기부하는 좋은 일이 어떤 사회문제에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묻고 찾아보고 생각한다. 안 그렇겠는가, 뼈뺀 살림살이에 달마다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이 잘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요지부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기부를 요청하고 조직하는 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 가족 밖으로 눈을 돌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에 감동하게 만든다.

기부하는 남편과 아내, 기부하는 부모와 아이들. 그런 가족이 있어, 우리 사회는 참 행복하다. 올해 봄,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주신 모든 가족들께 특별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우리의 젠더감수성에 질문을 던지다

201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 교육 매뉴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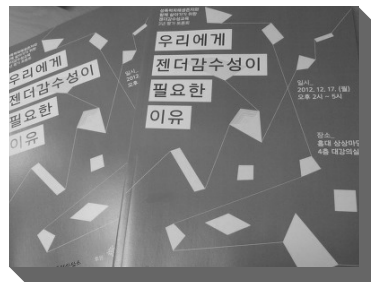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재단의 '201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젠더감수성 교육의 경험과 성과를 담아 '젠더감수성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젠더감수성은 무엇이며 그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 사무국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젠더감수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 일상의 성별적 관계와 상황들을 성찰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젠더감수성 교육을 왜 시작하게 되었나?

2009년에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온 사회가 시끄러운 때였어요. 그때 열림터(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가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네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지요. 다들 성폭력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내 일상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의 문제임을 공감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회성의, 정보 제공에 초점이 두어진 기존의 성폭력예방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젠더체계 전반을 각자의 일상에서 성찰해볼 수 있는 교육 기획으로 2010년부터 시작했지요.



젠더감수성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강사의 설명방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시각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함께 성찰하고 서로 이해하는 방식으로요. 지난 3년간 교육의 키워드는 '젠더 · 섹슈얼리티, 성폭력(자기방어), 십대, 공동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변화도 있었구요. 처음에는 교육 참가자가 주로 부모님들이 많아 아동 및 십대의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점차 대상을 확장시키면서 반성폭력 감수성 중심의 훈련 내용으로 변화되었어요.

교육사업을 하다가 매뉴얼 제작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학교나 회사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성희롱예방교육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이처럼 교육접근 기회가 적은 지역이나 공동체 내의 분들에게 다가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 매뉴얼을 활용하신다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구요.

2013년 3월에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추방하고 예방하자는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젠더감수성 교육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적 폭력을 추방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로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박영숙 선생님을 추억하며

신인령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사실 연세 드신 어른들, 선배님들이 가시는 일은 비록 아쉽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누구나 예정된 길 아닌가.

저는 근래에는 선생님을 그리 자주 만나 뵈면서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니 왜 이리 마음이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시던 날 저는 마치 상주가 된듯 하였습니다.

저의 박 선생님과과의 만남은 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사회 교육에서였습니다. 몇 년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하면서 지냈는데, 그 후 저는 노동교육과 노동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여성운동과 정계진출 등으로 분주해지신 박 선생님을 자주 뵈 기회가 없었고, 주로 광장에서의 집회나 기념행사 중 만발치에서 인사도 없이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시민운동 및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원로 어른들의 모임에 과분하게도 저를 불러주셔서 매월 나가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제가 못나가면서 박 선생님과과의 만남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방사선치료를 받으시고 막 귀가하신 편찮으신 선생님을 댁에서 뵈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 곰곰이 돌이켜보니 젊은 시절 함께 한 세월이 선생님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와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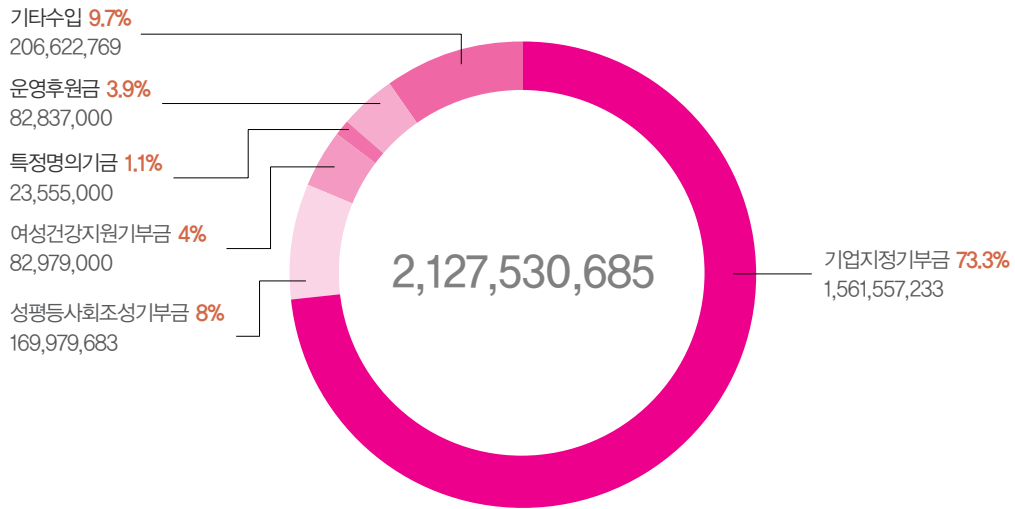
을 간직하게 한 것이고, 긴 세월 고단하던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직접 간접 마음을 나누며 위로받았던 기억, 그리고 쉽 없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바라 본 것이 기쁘이고 자랑스러움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시절엔 저와 띠 동갑의 선배 어른이신 분이 마치 친구처럼 겸손하시고 허물없이 함께 해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이 평생 저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어느 ‘대화모임’에서(지금 앞뒤 맥락은 다 잊어버렸지만) 박 선생님의 “그것은 결국 status quo가 아닌가?”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시던 온화한(!) 음성이 저의 머리 속에 입력되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 이런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 즉 기존 질서를 잘 유지하는 일(status quo)에 종사하는 사람과 기존 질서를 변혁하려는 일(movement)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후자에 속하셨습니다.

70년대, 머리에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거리투쟁하시던 선생님, 헬멧 쓴 전경들에게 붉은 장미 송이를 나누어 주시던 선생님 일행들의 모습, 시청 앞 광장의 민중 집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손잡고 춤추시던 우아하신 선생님, 눈에 선합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입 • 기간 : 2013. 1. 1 ~ 2013.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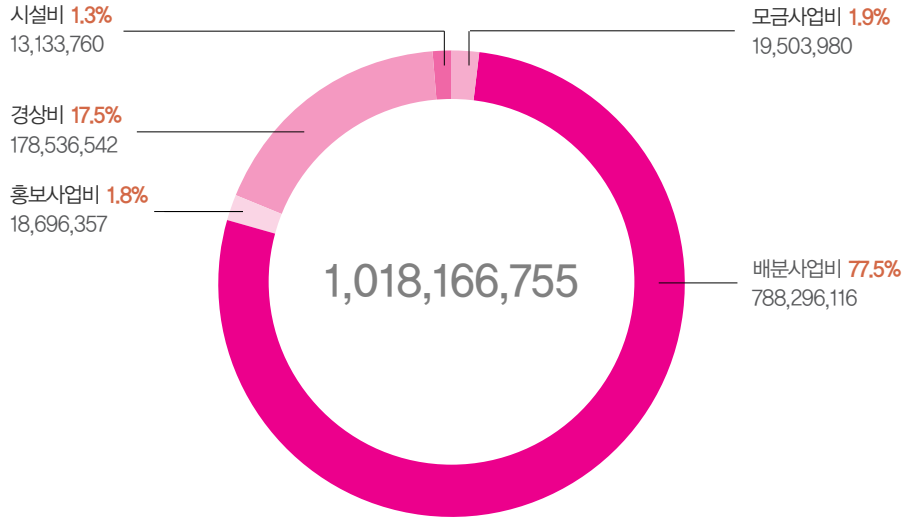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61,557,233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안전, 안심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169,979,683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2,979,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애경산업기금 등	23,555,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82,837,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206,622,769
총 수 입		2,127,530,685

2013년 1-6월 재단 수입 및 지출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출 • 기간 : 2013. 1. 1 ~ 2013. 6. 30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19,503,980
배분사업비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사리손지원사업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자녀, 여성활동가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다문화이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프로젝트 (우정사업본부) • 희망날개 - 다문화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불빛장학금(탈성매매여성장학사업) • 싱글맘 홀로서기 지원사업(애경PLAZA) • 희망멘토링-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LG이노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시설개보수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 - 짧은여행 · 긴호흡 (교보생명) • 시설개선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 • 기업지정사업 등 4.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우리동네사업 (한화생명보험)	788,296,116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18,696,357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78,536,542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3,133,760
	총 지 출	1,018,166,755

2013년 5-6월 개인기부자 명단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

(주)금강테크 SK커뮤니케이션(에스케이) 강경림 강경희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덕희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문영 강미라 강미정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보승 강보은 강석기 강상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양숙 강연조 강원화 강은나 강인순
강제훈 강종남 강종란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진애
강태영 강태호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선 강혜숙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경춘옥 고경표 고경희 고명화
고명희 고보성 고복신 고영아 고영주 고유지 고은정
고은채 고정원 고주형 고현숙 고현철 고효균 고희경
고희숙 공명숙 공선영 공옥분 공인자 객선영 객영선
곽옥자 곽유규 객은숙 객지현 객희환 구민수 구분경
구상권 구술기 구영남 구영만 구영선 구옥순 구은경
구인선 구자민 구자용 구재웅 구춘자 구충분 구태희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자 권광자 권규주
권기석 권난실 권민경 권민원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영순 권영애 권영록 권오수 권오일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정 권태희 권태현
권혁주 권혜경 권혜영 권혜영 권희숙 금경림 김갑순
김강식 김건우 김경구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식 김경신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경식 김경신 김경아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웅 김광이 김광자
김광재 김광하 김광하 김국찬 김규식 김규태 김근애
김근해 김금례 김금례 김기성 김기선 김기선 김기숙
김길아 김나리 김나영 김남욱 김남주 김남호 김다영
김대규 김대규 김대순 김대영 김덕선 김덕식 김덕일
김덕일 김도경 김도수 김도현 김동식 김동식 김동태
김동천 김동호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민한
김말희 김매화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옥 김명의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성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림 김미봉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진
김민희 김병관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열 김봉겸 김봉일 김봉춘 김봉기 김상근 김상본
김상순 김상옥 김상진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석준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영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세화
김세희 김소현 김수경 김수근 김수미 김수미 김수열
김수영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미 김순복 김순애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영 김순자 김순규 김순철 김시진
김신원 김신정 김실환 김이라 김애숙 김양영희 김양자

김양희 김연례 김연미 김연순 김연화 김연희 김영규
김영균 김영길 김영길 김영남 김영란 김영래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신
김영신 김영아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옥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채
김영하 김영화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오목 김옥분
김옥은 김옥천 김 용 김용관 김용익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유미 김유미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선 김윤수 김윤정 김윤주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실 김은실 김은아
김은아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근 김익자 김인경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지현
김진디 김장림 김장화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순 김재현 김재현 김재현 김재현 김정옥
김정규 김장기 김장대 김장란 김장미 김장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순 김정순 김정애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장자 김장자 김장현 김장혜 김장희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덕 김종욱 김종순 김종일 김종주
김종철 김종화 김종화 김주미 김주영 김주영 김주원
김주원 김주원 김주원 김준순 김준희 김지란 김지석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규
김진근 김진영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용 김진원
김진일 김진주 김진태 김진표 김진현 김진희 김진희
김치순 김창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형희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택수 김하영 김하영 김학복
김해조 김해용 김해원 김해미 김한관 김 현/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옥 김현옥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성 김형재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정 김호진 김홍기 김홍식 김홍자 김화석
김효선 김효순 김희경 김희경 김희경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정

나

나도선 나동순 나문용 나성주 나성희 나윤경 나은주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숙영
남신석 남윤인순 남정민 남진숙 노무현 노선숙 노영숙
노옥련 노윤범 노윤숙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희정 노현준 노형수 노형준 노혜진
노희정

다

도서관친구들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라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태 류재욱 류춘희 류태한

마

마경희 마선자 마정운 맹화경 명옥희 명진숙 모은영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숙 문경호 문금주 문길화
문명숙 문명숙 문미란 문미애 문보경 문봉순 문새미
문성원 문수내 문숙남 문승일 문영호 문은영 문은영
문인선 문인숙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채희 문희영 민가영 민경주 민승례 민옥자 민용자
민형태 민희진

바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순
박경아 박경연 박경희 박광후 박규리 박규선 박근영
박근희 박금래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선 박노숙
박대근 박동렬 박동연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자 박명주 박요진 박미라 박미라 박미란
박미향 박미화 박민숙 박민영 박민혁 박민희 박병희
박보환 박사용 박삼숙 박상봉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선인 박성근 박성미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소경 박수미 박수영 박수진 박수향
박숙희 박순공 박순규 박순옥 박순균 박순일 박순진
박순호 박신규 박신연숙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숙 박영숙 박영실 박영이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순 박옥필 박용민 박용분 박용순 박용선
박원희 박윤희 박은숙 박은숙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은희 박의자 박이래 박이순 박익수 박인희 박재서
박재서 박재욱 박정근 박정미 박정미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자 박정진 박정혜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종남 박종순 박종호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 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찬철
박채용 박춘애 박춘순 박한솔 박 현 박현경 박현숙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현정 박현진 박현희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화순
박효숙 박효철 박효희 박희선 박희숙 박희옥 반정애
방선주 방성희 배경주 배선희 배소정 배수경 배숙일
배영숙 배정미 배정민 배종학 배한솔 배한영 백경남
백경원 백경자 백경희 백부서 백선희 백순애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호 백인선 백종현 백형철 백화선
변보석 변성운 변영선 변영희 변영태 변형석 변화순
복진수 봉성근

사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덕순 서동규 서미석 서민정
서병옥 서선숙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희 석미화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현
성용원 선길자 선은주 선진규 설경중 설영수 성경남
성영애 성고은 성기화 성영중 성영철 성인순 성정현
성지희 성현녀 성형주 소옥녀 소진선 소희로자 손낙희
손만순 손병준 손상호 손석철 손순동 손순연 손갑구
손연숙 손영숙 손은주 손재광 손정길 손현숙 손현옥
송경옥 송경희 송기용 송기원 송다영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희 송세령 송수자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오정 송윤희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재용 송장자 송정에 송주연 송주연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송희초 순수정 신디은 신대환
 신동석 신동철 신동화 신명순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선미 신성태 신소영 신승희 신연숙
 신영미 신영희 신용신 신용현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장예 신지원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준화 신현인
 신현정 신현철 신혜숙 신호상 신호성 신하숙 신하숙
 심경자 심명운 심복길 심숙경 심영애 심영희 심은주
 심재복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춘숙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아

아라이유카 아이파카소브러쉬 주식회사 안경자 안기선
 안기현 안디은 안덕남 안명순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병철 안봉순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신화
 안성희 안세준 안소연 안숙경 안숙화 안승용 안숙옥
 안은성 안재춘 안재철 안중희 안준호 안지현 안진희
 안필남 안해경 안현희 앙금순 앙도숙 앙미현 앙서량
 앙세경 앙오식 앙은석 앙이숙 앙일순 앙재섭 앙태경
 앙현식 앙현자 앙현정 앙혜선 앙혜선 앙후전 앙희영
 앙희은 어현경 엄선애 엄재숙 엄태익 엄태도 에이케이
 에스앤디(주) AK분당점 엠블럼 어미숙 여선숙 여성문
 화이론연구소(사) 어진경 연미자 연은희 엄미화 엄인소
 예은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진
 오미향 오상병 오상호 오성규 오세훈 오수원 오수정
 오숙환 오승용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경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지은
 오진흙 오준희 오현원 오희주 옥지영 옥천수 왕성숙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울산여성외과 원경숙 원예복
 원예달 원옥규 원용길 원유정 원혜숙 원하숙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난희 유영종 유무선 유미라
 유서연 유선기 유선희 유숙자 유순복 유승환 유승희
 유영미 유영실 유영재 유윤임 유은자 유은주 유은총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용 유정미 유정신 유정이
 유정자 유정희 유정희 유지숙 유해미 유현정 유화열
 유희정 유희정 육성희 육은정 윤경숙 윤계원 윤귀분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미아 윤병환 윤비연 윤석남
 윤선정 윤수련 윤 숙 윤순규 윤순남 윤영경 윤영미
 윤영배 윤영옥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영 윤은정
 윤은화 윤인숙 윤재환 윤정보 윤정분 윤정자 윤정화
 윤정희 윤정희 윤창희 윤혜영 음종성 이가운 이가춘
 이가히 이강산 이간우 이간정 이경미 이경선 이경신
 이경애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계경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하 이관현 이귀연
 이귀우 이규백 이규선 이근재 이근주 이근현 이금녀
 이금복 이금순 이금재 이기선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덕남 이덕민 이덕춘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순 이명옥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용 이미자 이미정 이미정
 이미진 이미향 이미향 이 민 이민경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도 이보희 이복순 이복희 이봉남 이상근
 이상미 이상민 이상엽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선례 이선미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선필 이선희 이선희 이상규 이상열 이상우
 이상은 이상일 이상자 이상현 이상희 이소영 이소형
 이소희 이소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훈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숙희 이순덕 이순오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현 이순희 이순희 이송수
 이송자 이송진 이송현 이송현 이송희 이송희 이시연
 이심옥 이쌍선 이안나 이예란 이양주 이연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재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수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현 이영하 이영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옥희 이완진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찬 이원대 이원식 이원유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경 이윤성 이윤열 이윤희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화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수 이의녀
 이의영 이의환 이익주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우 이인우 이인자 이인자 이인숙 이인하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숙 이재원 이재준 이재환 이점무
 이점순 이점민 이점숙 이점숙 이점옥 이점옥 이점원
 이점원 이점자 이점자 이점구 이점영 이점남 이점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혜 이종훈 이종홍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주순 이지락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원 이지원 이진경 이진숙 이진숙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진은 이창하 이창하 이창하 이창하
 이춘아 이치우 이태용 스테파노 이태원 이태현 이태화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선 이해경 이행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준 이현지 이현진 이형근
 이혜경 이혜경 이혜련 이혜숙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선 이호태 이희재 이화숙
 이환국 이회영 이효숙 이효형 이후영 이희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숙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이희정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덕희 임선희 임선희 임성무/김말순 임성원 임성택
 임수경 임수연 임수진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영
 임영미 임영숙 임영주 임용태 임인숙 임인영 임정규
 임정혜 임진식 임진철 임재홍/대왕철강 임춘근 임현숙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홍석

자

자숙에 장경숙 장경월 장경혜 장금옥 장기정 장길용
 장남중 장덕현 장동애 장명련 장명숙 장명숙 장미정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현 장순연 장순화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숙 장영미 장영석 장영자 장영윤
 장영임 장영혜 장옥형 정은선 정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장아 장정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태옥
 장해경 장학재 장혜경 장혜숙 장혜영 장해자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명남 전미경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수경 전수복 전순옥 전순선 전순희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영희 전옥순 전요왕 전용수 전원수 전은서
 전정희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태자 전현정 전현주
 전혜경 전혜미 정경상 정경수 정경옥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길식 정길식 정나일선 정낙주 정다운 정다정
 정덕희 정명숙 정미경 정미도 정미선 정미선 정미영
 정미옥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자 정삼자 정삼여
 정상만(조성은) 정상철 정선미 정선아 정선영 정성남
 정성태 정성화 정소영 정수연 정숙옥 정승희 정선희
 정연필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영환 정옥영
 정옥임 정용주 정원영 정원영 정원희 정유연 정윤주
 정윤현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숙 정정희 정정중 정지용 정지윤
 정진옥 정찬숙 정창남 정창자 정태호 정하자 정 현
 정현미 정현미 정현아 정현애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희경 정희희 정희철 제갈훈 제승옥 조경미 조경자
 조경희 조광행 조광호 조관중 조규원 조기환 조동환
 조만중 조명숙 조 미 조미경 조미래 조미영 조미진
 조배원 조범신 조복희 조상재 조상진 조시희 조성덕
 조성만 조성민 조성옥 조성자 조성환 조성희 조세화
 조수용 조승호 조승희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숙
 조영순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옥화 조윤세 조윤희
 조은영 조은영 조정란 조정숙 조정연 조정현 조정훈
 조정희 조정희 조주현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판용 조항례 조혁중 조현숙 조현주 조 형 조혜련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주미영 주석중 주선숙 주양애 주 영 주향숙 지상구
 지숙자 지용구 지일조 진미숙 진소미 진주미

차

차경선 차세원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옥 차철용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성 채지연 채진석
 천병석 천소연 천영희 천정윤 천희란 천경수 천경숙
 최경숙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
 최길식 최길용 최희도 최동길 최미래 최명진
 최문영 최문희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병목 최병희
 최보숙 최석준 최선아 최선아 최선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신아 최재경 최양호 최영숙 최영옥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유진 최윤미 최윤정 최윤정
 최윤희 최은경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은희
 최 인 최인숙 최인희 최인희 최인희 최이정 최이정
 최재식 최정수 최정아 최정윤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하 최종악 최준서 최진희 최철만 최태민 최하늘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주 최현진 최현진 최현호
 최현희 최현미 최형옥 최혜경 최호식 최희숙 최희연
 최효진 최희경 최희화 최효훈 최현식

타

타숙은

파

편민자 평해연 표근해/표일용 피선희

하

하경란 하두련 하만호 하순원 하순신 하영희 하윤숙
 하자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경희 한명선 한명희
 한미순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병숙 한수옥
 한승미 한승호 한애자 한영애 한옥련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정연 한정옥 한정의 한정현 한진희 한춘화
 한혜경 한혜준 함윤경 함정순 해수학원 해피빈 해남선
 허명지 허명하 허미영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순자
 하신하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유희 허은실 허은실
 허정옥 허혜영 허효영 현선녀 현준식 호성투어 호옥희
 홍경숙 홍근재 홍금택 홍기태 홍미경 홍미선 홍미정
 홍상옥 홍상호 홍석보 홍선영 홍성은 홍성희 홍수연
 홍순영 홍영구 홍영애 홍영애 홍영희 홍영희 홍은희
 홍인숙 홍종자 홍정인 홍진선 홍준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규정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석민 황성락 황순자 황시연 황윤영 황은주
 황은지 황은진 황인선 황인자 황인희 황정선 황정임
 황정혜 황주연 황진택 황훈영 황희웅상



‘이화-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리더십교육과정’ 수료식



여성활동가들의 리더십 증진 및 차세대 리더 양성을 지원하는 ‘이화-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리더십교육과정’의 2013년도 상반기 과정 수료식이 지난 6월 12일(수),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이 유한킴벌리의 후원으로 6년째 지속하고 있는 본 과정은, 올해 ‘여성이 마을을 만든다 : 지역, 환경,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지역여성활동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총 7주간 진행되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임영화 유한킴벌리 부사장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축하인사를 전하였다. 장필화 이화리더십개발원 원장 역시 “다른 위치, 다른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에 감사드린다. 우리 하나하나가 큰 존재임을, 여기서 맺은 인연이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는 말로 축하인사를 전하였다. 하반기 교육과정은 9월에 다시 개설될 예정이다.

공고 | 다문화여성을 위한 문화기획자과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용역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다문화 교류 및 문화다양성 존중 프로젝트 ‘희망날개’가 문화기획자과정 위탁교육 용역을 공모한다. 본 교육용역사업은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문화여성의 기획역량을 향상하여 관련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 프로그램명 : 다문화여성을 위한 문화기획자 (교육)과정
- 교육 내용 :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사업 블로그의 해당 내용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 접수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8월 25일
- 결과발표 : 2013년 9월 10일(예정)

| 선정결과 | 다문화여성커뮤니티 지원 '2013 희망날개' 지원 커뮤니티 선정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다문화 교류 및 문화다양성 존중 프로젝트, '희망날개'의 2013년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신규 커뮤니티 12곳과 지속 커뮤니티 7곳을 포함한 총 19개 단체. 동화구연극, 음식, 춤, 합창, 난타,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커뮤니티들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문화생산자로서의 역

량을 향상시키고, 올 가을 각 커뮤니티들의 문화 콘텐츠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희망날개'는 자생적인 다문화여성커뮤니티 활동 및 커뮤니티간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여성들의 문화역량 개발 및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다문화 콘텐츠 향유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지난 201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다.

| 선정결과 | '2013 Happy Bath, Happy Smile, ARITAUM in U' 시설개선사업 선정



한국여성재단이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시설개선사업 'Happy Bath Happy Smile', 'ARITAUM in U'의 2013년 지원시설이 최종 선정되었다.

여성이용시설 및 단체의 욕실·화장실 개보수를 지원하는 'Happy Bath Happy Smile' 지원시설에는 내일여성쉼터 등 5개 단체, 아모레퍼시픽의 'ARITAUM' 디자인을 적용한 대안공간 리모델링 사업 'ARITAUM in U'의 지원시설로는 대전평화여성회 등 총 6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여성생활·이용시설 및 비영리 여성단체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통할 수 있는 여성대안공간을 창출하고자 기획된 본 사업은 지난 6월 28일에 KBS1 열린채널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 선정결과 | '2013 다문화아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선정



한국여성재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다문화아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에 전국의 다문화가정 25곳(94명)이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선정된 25개 가정의 자녀 및 가족들은 7월 27일~28일(1박 2일)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열리는 전문화된 자녀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9월에 총 7박 9일의 일정으로 외갓집 방문에 나선다.



| 선정결과 | 2013년 ‘봄빛기금’ 장학생 선발

탈성매매여성 중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봄빛기금’이 2013년 제2기 장학생을 총 10명 선발하였다.

지난 2012년에 제1기 장학생을 선발, 총 12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6명은 현재 학업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현장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이번 제2기 봄빛기금 장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및 학업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선정결과 | ‘2013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파트너 단체 및 지원사업 선정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한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2013년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2010년부터 4년째 지속해온 본 사업은, 올해 특별히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모 결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미모(美母)를 찾아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지부의 ‘미혼모 강사뱅크사업 및 인식개선 캠페인’,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의의 인간도서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이상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선정결과 | 2013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 여성활동가 비전여행 참가자 선정



열악한 구조에서 고된 활동에 지친 소규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을 통해 쉼과 여유를 지원함으로써 처음의 열정과 설렘, 비전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활동가 비전여행’ 최종 참가자 선정이 7월 29일(월)에 발표되었다.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2013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활동가 비전 여행은 8월 29일에 사전 워크숍을 거친 뒤, 9월 25일~9월 30일 필리핀 세부와 보홀에서 4박 5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기부자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기부’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지만
아직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나눔 문화의 확산과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자님의 사연을 나누어주세요.

부모님에 이어 자녀가
함께 기부를 시작한 이야기,
기부의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기부 중단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이야기 등등

다른 기부자들에게는
‘공감과 소통의 즐거움’을 주고,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격려의 응원’이 될
기부자님의 다양한
기부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 기 간 : 2013년 8월 1일~8월 31일
- 분 량 : A4 2/3매(원고지 6매분량)
- 접 수 : 이메일 womenfund@hanmail.net
- 게 재 : 한국여성재단 소식지 ‘딸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 블로그, 뉴스레터
- 증 정 : 이야기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문 의 : 김보연 대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 02-336-6463



희망을 만드는 만만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만만클럽은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정기기부자 1만명의 회원클럽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전·안심사회만들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 활동 지원에 쓰여집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요?

정말로
안심이라구요?

- '36초'마다 강력범죄 발생
- 성폭력은 '28.8분'마다 발생
- 성폭력사범이 3년 만에 '33%' 급증
- 아동성폭력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5,000건당 1명

출처 :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1 경찰청 통계

아픔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만만클럽,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 우리의 기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의 힘

Hope-Livelihood	Hope-Campaign	Hope-Education
폭력피해 생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안전·안심사회에 대한 국민감수성 제고 캠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와 확산



희망을 기부하는 당신을 만만클럽에 초대합니다

참여방법: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정기기부 신청→기부희망분야로 '만만클럽' 선택
2. 전 화 : 02-336-6463 (기획홍보팀)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3. 우 편 :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서 재단으로 보내주세요
4.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
5. 계 좌 : 농협 1279-01-000772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국민 079-25-0041-019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문의 :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 02-336-6463 FAX : 02-336-6459